

백원국 2차관, “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” 강조

- 6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현장 찾아 현장 안전관리 강화
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당부 -

-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3월 6일 오후 ‘호남고속철도 2단계’ 현장을 방문하였다.
 - 전남도 부지사와 광주 부시장도 참석한 가운데, 전남·광주지역 철도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 - 우선 백 차관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현장(1공구) 상황실을 방문하여, 전남·광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철도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후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정집행 및 공사 적기 추진 (연내 보성~임성리 구간 개통 등)을 당부하였다.
 - 백 차관은 “해빙기에는 지반이 연약해져 절토사면·옹벽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안전점검 및 보강을 통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3월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관 합동 철도건설 현장의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*을 철저히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* 철도건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: 국토부, 국가철도공단, 외부전문가(교수·연구원·엔지니어링社 등) 구성, 전국 478개 철도건설·시설개량 현장 점검 (3.4~21)

- 또한, “국토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사회기반시설(SOC) 예산의 약 70%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”으로, “전남·광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이어서, 백 차관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구간내 교량 상부거더 시공 중인 ‘학교교(전남 함평 소재)’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“교량, 터널 등 대형구조물 공사시, 시공전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” 라면서,
 - “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,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담당부서	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지동선 (044-201-3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한 (044-201-3951)
			사무관	이동호 (044-201-3961)
			사무관	이재훈 (044-201-3417)
			사무관	김경태 (044-201-3961)
담당부서	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	책임자	처장	우기하 (062-602-5203)
		담당자	단장	김정석 (062-602-5361)